

## 임신 7주부터 무료 진료서비스

소련 보건부 모자안전연구소 최선옥씨

### 인력부



11일 열린 대한의학협회 주최 '소련의학학술원 회장단 초청 학술강연회'에 참석한, 유일한 한국인인 소련연방 보건부 모자안전연구소 최선옥(58) 연구원을 만났다.

20년 남짓 모자보건 분야에서 일해온 최씨는 소련 모자보건의 특징으로 먼저 모든 임신부는 '임신 7주부터 진료기관에서 정기

## 직장여성 출산휴가 4개월 한-소 본격 의학교류 기대

검진 등 모든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점을 꼽았다.

"미혼모라도 병원에서 무료로 임신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건강검진을 받다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병원에서 직접 임신부에게 연락합니다."

소련에서 직장여성의 출산휴가는 산전 2개월, 산후 2개월 합쳐 4개월이다. 소련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임법은 자궁내장치인데, 최근 들어 에이즈 감염 우려 등으로 남성의 콘돔 사용이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피임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라고 전한다.

"한국처럼 국가시책으로의 인구조절정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를 불문하고 불임시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내륙지방에서는 아이를 대여섯명까지 낳는 경우도 있지만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최씨는 52년 소련으로 건너가

세체노브 제1의과대학에서 소아과를 전공한 뒤 68년부터 모자안전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오고 있다.

최씨가 근무하는 모자안전연구소는 1천5백명의 의사·간호사들이 일하고 있는 대규모 기관으로 기초의학 연구뿐 아니라 직접 임상환자를 보는 일까지 함께 맡고 있다.

지난해에도 모자보건 실태파악을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던 최씨는 13일부터 18일까지 보건사회부 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하도록 주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소 의학교류가 소련의 발달한 기초예방의학과 한국의 치료의학이 서로 의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고 한-소 의학교류에 대한 기대를 밝힌다.

〈김미경 기자〉